특별 인터뷰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 원장 〈대담 권계주 대종원 부총재〉

(좌)권계주 부총재 (우)권혁세(전) 금융감독원장

문 1 연말이라 바쁘신중에도 귀한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요즈음 근황은 어떠하신지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성남시분당구 갑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신인으로 첫 발걸음을 뗀지 이제 며칠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며 도전하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위기임을 진단하고 정치혁신만이 경제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역설한 책 '더 좋은 경제'를 출간했는데 언론에서 큰 관심을 갖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어서 '권혁세의 두 번째 책 이야기'라는 주제로 분당에서 경제정책 토론회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는 후보등록과 함께 출마선언식을 했고 그 후에는 매일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을 찾아 뵙고 지금의 우리 경제와 정치 상황에서는 저같은 경제전문가가 나서야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직에만 있다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다보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발전과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문 2 행정고시로 시작 공직에 오래 몸 담으셨다가 금융감독원장까지 하셨는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소개 말씀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제정)에 의거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1.2 설립되었고, 그후 2008.2.29.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난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식거래나 기업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일반인들도 금융관련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의 튼튼한 금융 펀더멘탈을 구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감독원장 재직시절 우리 경제를 뒤흔들었던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구조개혁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해 성공적으로 수습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가계부채와 서민 및 소비자 보호 업무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문 3 새누리당에서도 금융당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설명도 해 주십시오.

현재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그리고 핀테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에서 금융과 ICT를 결합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금융산업도 이제는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탄생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당 갑구에 출마하려는 것도 판교테크노밸리가 자리잡고 있는 분당·판교지역을 미래 혁신 융합산업의 핵심 거점벨트로 육성하고, 특히 금융과 ICT를 결합한 핀테크 산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위기를 돌파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4 세계경제도 어렵고 국내경기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좋은 방안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경제는 드러난 지표나 외관과는 달리 보이지 않거나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요소들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위기불감증이 만연해 있고 정치권의 여야 대치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대정부를 돌아보면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라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과 금융등 4대 부문 개혁을 비교적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노무현정부는 북핵사태와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에 이은 대통령탄핵사태로, 이명박정부는 쇠고기파동에 이은 글로벌금융위기로 정부출범 초기에 제대로 된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당면한 위기대응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현 정부가 안고 있는 많은 과제들, 예를 들면 가계부채, 기업투자부진, 서비스산업 육성, 저출산, 부동산 및 자영업 문제 등은 지난 정부의 10년동안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정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에너지를 결집하여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간의 당파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고, 이웃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국가행정의 확립과 정치선진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 5 공직생활을 마치신 뒤에도 대학교 교수로 후학을 가르치고 법무법인 일도 하시는 등 바쁜 사회활동을 해왔습니다. 뿌듯한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2013년 3월 금융감독원장을 끝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쳤습니다. 그 후에 서울대 경영대학 초빙교수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후진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지난 2년 반동안 상공회의소와 경총 등 각종 단체와 대학교, 금융회사, 기업에 50여차례 경제 특강을 하면서 글로벌 저성장시대에 기업과 금융회사, 가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 나갈 것인지를 역설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언론에 50여차례 기고도 하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충정어린 제언도 해왔습니다.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아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루 7시간 이상 뼈를 깎는듯한 고통을 참아가면서 집필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책인 '성공하는 경제'를 출간했고 최근에는 두 번째 책인 '더 좋은 경제'를 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저의 고뇌와 지혜가 책장 한 장 한 장마다 온전히 베어있어 보람있었던 일 중의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6 금융산업의 전망과 육성발전 계획에 대하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의 자체 경쟁력도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며 소비자 이익 또한 늘어나는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업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관치금융 철폐와 규제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금융산업에 대한 개방과 경쟁이 촉진되면 금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소비자 권익도 증대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제고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국내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과 M&A를 통해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우리도 금융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문 7 바쁘신중에도 '더 좋은 경제' '성공하는 경제' 등 저서도 많으신데 내용을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더 좋은 경제'와 '성공하는 경제'는 저의 33년의 공직생활동안 몸으로 겪은 현장 경험과 현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풀어쓴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일선에서 전력을 다하면서 경험한 것을 비춰보면서, 한국이 지금 위기의 기로에 섰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출간한 '더 좋은 경제'는 현 한국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치 혁신을 통한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껴 저술하게 된 책입니다. 바오류시대로 진입한 둔화된 중국 경제와 금리 인상을 목전에 둔 미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3대 위기라는 쓰나미가 한국 경제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신흥국발 국제금융, 부동산발 가계부채, 제조업발 기업부실 위기라는 3각 파도에 대비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경제'는 이런 위기의식을 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책입니다. 뉴노멀시대로 진입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찰한 책입니다.

문 8 우리 종친들과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위한 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불신주의와 세대·빈부·이념 갈등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종친들이 서로 아끼고 어려움을 함께 해주신다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공동체 의식과 희망의 사다리 회복이 더불어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있어, 우리 종친회분들이 만들어주시는 화합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문 9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

우선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계기이자 저의 모토이기도 한 '정치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에 앞으로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역 곳곳의 국민들의 어려움을 귀 담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가 팔을 걷어부치고 돕는 일을 제1의 우선순위로 둘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가장 자신있는 부분인 경제 개혁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혁신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10 종친회의 젊은여성과 청·장년들이 많이 동참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하여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우리 종친회의 젊은 여성분들, 청, 장년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시간을 내어서 독거 노인분들을 찾아가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OECD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슈화 되었던 부분이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독거노인 찾아가기 및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면, 종친회 내부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일을 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면, 종친회 내부의 커뮤니티도 활성화되고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의 마음을 달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11 전국 족친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족친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종문의 혈족계보가 거족이요 또 명문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세가 어렸을 때는 늘 자긍심의 밑바탕이었고 공직에 있을 때도 항상 좋은 기운을 받아 올바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오신 족친 여러분의 긍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명현석학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도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족친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에도 더 큰 행복이 항상 깃들길 기원합니다.

문 12 평소의 건강관리와 삶의 좌우명은?

일주일에 한번 꼭 산책하는 것이 저의 건강관리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동네인 분당에는 탄천을 따라 공원이 아주 멋있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안사람 손을 잡고 천변에 조성돼 있는 공원을 걷다보면 몸의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주말 저녁 예능프로가 끝난 시간에 서서히 걷노라면 분당 지역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탄천에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으로 분당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두 가정적이시구나 생각하곤 합니다.

저의 삶의 좌우명은, 천편일률적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감사하기입니다. 대내외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다보면, 목이 잠기고 몸에 기운이 없을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혁신을 이끌어나갈 소스를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생각하다보니 건강관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종친회장협의회 송년임시총회개최

2015년 12월 15일 11 : 00 대종원 서울사무소에서 전국 각 지역종친회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권영갑 간사의 사회로 회의장소가 협소하여 다른 의식은 생략하고 시조태사공께 망배(望拜)를 드리고, 회장 인사, 총재 격려사, 경과보고,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길상 협의회장은 경향각지(京鄕各地)에서 공사 간 바쁜 일들은 뒤로 미루고 협의회에 참석하신 종친회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오늘 임시총회에는 지난 총회 때 <시조와 낭중공의 춘추향사 일자 변경>에 따른 의견이 분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송년임시총회를 겸하게 되었다고 인사하였다.

권정달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먼저 참석한 종친회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시조와 난중공의 춘추향사 일자 변경>의 문제는 지난 5월 20일 원임회의를 거치고, 대종원총회에서 순리(順理)대로 협의하여 결정되었는데, 그 후 여론이 분분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오니 지역종친회장들은 각 지역에서의 여론(輿論)을 수렴(收斂)하여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기탄(忌憚)없이 이야기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경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조와 낭중공의 춘추향사 일자 변경>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토의시간에 <시조와 낭중공의 춘추향사 일자 변경>에 따른 토론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수렴(意見收斂)을 위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권길상 협의회장은 차후 개최 될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에서 재론하여 그 결정에 따르자고 하고 회의를 모두 마쳤다. 당일 권정달 총재는 지역종친회 발전기금으로 50만원을 전달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권영갑 간사〉

新年辭

뿌리 깊은 나무는

권기덕(안동권씨파종회장 협의회 회장겸본원 부총재)

밝아 오는 병신년(丙申年) 아침에 일백만(一百萬) 족친(族親) 여러분 건강(健康)하시고 여러분의 가정(家庭)에 행운(幸運)이 가득하시기를 기원(祈願)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 하듯이 우리 권문(權門)은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께서 천년(年) 전에 내린 뿌리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치지도 않고 지금에 이른 것은 실로 우리나라 명문거족(名門巨族)의 면모(面貌)에서 볼 수 있는 남다른 숭조(崇祖), 애족(愛族)의 정신과 뿌리를 중시하는 바로 그 정신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권문(權門)이 크게 자랑하는 사시(四始)가 있습니다. 이 사시(四始)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지시(族譜之始)인 성화보(成化譜) 입니다. 이 성화보는 우리나라 족보의 효시(嚆矢)임을 보면 우리의 선조(先祖)들께서는 뿌리를 중시하고 훌륭한 뿌리가 되도록 힘써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 권문을 삼한갑족(三韓甲族)의 반열(班列)에 올려 놓게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昨今)에 이르러 급격히 변하는 시대적(時代的) 조류(潮流)에서 파생되는 개인주의 사상(思想)이 풍미(風靡)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전통적(傳統的) 가족제도(家族制度)는 핵가족화(核家族化)되고 전래(傳來)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은 동양적 도덕률(道德律)과 윤리관(倫理觀)이 붕괴됨에 따라 함께 소멸(消滅)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世界化)와 호주제도(戶主制度)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씨족사회의 가치관(價値觀)을 정립(定立)시키고 끊어진 친족간(親族間)의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줌으로서 각자 뿌리의 소중함을 각성(覺醒)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변화(變化)가 있다고 하여도 뿌리를 찾는 숭고(崇高)한 정신은 변하지 아니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소중하게 여겨 우리의 후손(後孫)에게 계승(繼承)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조상(祖上)의 얼이 깃들고 있는 유산(遺産)을 잘 보전(保全)하고, 족의(族誼)를 더욱 돈독(敦篤)히 하고, 우리 후손들이 면학(勉學)에 하여 유능(有能)한 인재(人材) 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디 권기(權紀) 1087년 새해에 국내외(國內外) 족친(族親) 여러분 복(福)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를 기원(祈願)합니다.

안동권씨 파종회장 협의회 임원명단

* 고문 : 권 계 동(權 啓 東)
* 회장 : 권 기 덕(權 奇 德)
* 부회장 : 권 오 창(權 五 昌)
* 총무 : 권 중 덕 (權 重 德)
* 감사 : 권 오 수(權 五 秀)

新年辭

송구영신

권길상(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장)

유례없이 벅찼던 을미년 한해를 보내고 광명의 병신년 한해를 맞으면서!

우리 안동권문 백만 권친께서 지난 한해 동안 좋았던 기억은 새해로 연장시키고 좋지 못했던 일들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훈으로 삼아 새해 설계를 튼튼히 하여 종친님들의 가족의 행복과 대종회의 융성 그리고 권문 각 단체와 더불어 우리 전국지역종친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전국지역종친회도 지난 4년간 여러 회장님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점은 대존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권기 1086년 오랜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우리안동권문은 전통문화의 숭상을 절체정명의 명제로 삼아 왔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문화숭상의 방도나 모양 그리고 방대한 종친조직의 운영방안은 시대세류 상황에 따라 이견이 노정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견노정의 양상이 충돌화되면 우리 조직에 큰 타격이 올수 있습니다. 이럴때 대공무사 공평한 화합을 신속히 얻어 내는것이 상책이라 사료됩니다.

시조님 향사일정 변경과 관계한 이견문제도 대종회 운영위원을 비롯한 각 파종회 산하 각 단체임원 전국 지역종친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당초시조님 향사일정 변경을 결정한 총회였지만 이견이 있다면 또 임시총회를 열어 다시 정답을 얻어내는 것이 절차상 합리적이고 종친간 돈목하여 산고를 격고 권문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백만족친의 대동단결을 위해 이신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해 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오며 전국지역종친회장 협의회장으로서 병신년 새해 인사 드립니다.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 임원명단

회장 : 권길상(전 부산종친회장)

부회장 : 권영성(전 영천종친회장), 영창(영주 종친회장), 호준(전 대전총친회장), 민호(전 산청종친회장), 영하(대구 종친회장), 충하(광주 종친회장) 병국(상주 종친회장), 영수(전 제천종친회장) 진수(인천종친회장)

新年辭

제28회 청·장년 체육대회 많은 참여를

권영수 (안동권씨 대구 청·장년회장)

희망찬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시는 뜻깊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2016년 새해도 족친 여러분의 화합과 단결로 더욱 발전하고 번성하는 권문이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는 4월에는 달구벌 들판에서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5월 3일 제1회 안동대회를 시작으로 27년이란 긴 세월동안 전국 100만 권문의 친목과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참가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해외 종친들까지 참가해서 33개의 팀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경북의 중심도시이며, 권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족친 여러분!

제 28회 체육대회가 우리 권문의 성대한 화합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병신년 새해 안동권문 모두의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